

디지털 시대의 비디오자료 수집과 이용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quisition and Use of Videorecordings in Digital Age - concerning for the public libraries in Pusan -

김 영 귀(Young-Kuy, Kim)**

<목 차>

I. 서론	IV.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조사결과 및 분석
II. 선행연구 개관	1. 자료수집
III. 도서관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	2. 설문지 구성
1. 비디오자료의 역사	3. 조사결과 및 분석
2. 비디오자료의 특성	V. 결론 및 제언
3. 공공도서관과 비디오자료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비디오자료의 선정 및 수집과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17개관(교육부 산하 12개관, 행정자치부 산하 5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기법을 사용하여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ate the videorecordings in public libraries. The method of activation is to analysis of data which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from respondent libra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budget of videorecordings is absolutely short.
2. The acquisition policy of videorecordings is not planned because of short budget and little standard selection tool.
3. Most of public libraries wanted to exchange and use of videorecordings through interlibrary loan.
4. The subject of collected videorecordings was almost oriented to the education and motion pictures .
5. Specialized collection policy of public libraries in Pusan is not considered in videorecordings selection.
6. 87 percent of public libraries are not circulate videorecordings to the end-user.
7. Group watching planning of videorecordings in public libraries was done by monthly.
8. 70 percent of public libraries was not perform user reaction survey after watching.
9. 13 percent of public libraries has done the video tape recording of TV programming.
10. Most of public libraries had not a video to introduce themselves and user also had not a plan to create a video.
11. Most of public libraries recognized the copyright law but they wanted to reproduce the videorecordings for user with permission of authors.

* 본 연구는 1998년도 신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I. 서 론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디지털시대라고 한다. “디지털 혁명”,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디지털 사회”,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정보” 등 여러 분야에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분야에 국한시켜 볼 때 과연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 되었는가(되었다면 디지털 도서관, 또는 전자도서관이라). 어쩌면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들은 이제 디지털 정보를 채취하고 유지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모든 정보자료는 디지털화 되어야 하며, 모든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가? 정보가 디지털화 됨으로써 그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자료와 아날로그 형태가 이용자에게 더 효율적인 자료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정보내용에 따라 더 적합한 매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신문과 TV, 라디오와 TV의 공존, 카세트테이프와 CD, CD와 Live Concert의 공존, 그리고 영화와 비디오, 비디오와 CD의 공존처럼 디지털 정보와 아날로그 정보는 공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용자에게 정보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된다.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게 될 디지털 시대에 비디오자료는 도서관자료로서 어떠한가. 오늘날 도서관이 1980년 이후 비디오 혁명(the video revolution)을 맞이한 후 비디오카세트는 전국을 통해 거의 모든 도서관 즉, 가장 작은 규모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부터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인쇄매체에 기반을 둔 사서들은 비디오 자료라는 매체 그 자체, 이용가능한 비디오 title, 비디오업자, 가격구조, 대중 상영권, 수서 방법, 그리고 이용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서관의 收書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 인쇄매체에 중점을 두었고, 시청각매체에 대해선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과거에는 보통 사서가 filmstrip, 오디오카세트, 16mm 필름 그리고 비디오카세트 등의 세계에 들어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취급으로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이제 비디오자료는 대중 전달매체로서 보편화되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에서는 인쇄매체, 시청각매체, 전자매체 등 多媒体가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의 場이고, 文化전달 기관이며, 다양한 봉사대상층을 가지고 있

다. 비디오 자료는 반복시청(교육)이 가능한 교육매체로서, 文化전달 매체로서, 그리고 대중전달매체로서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매우 적합한 정보매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대중 정보전달매체인 비디오 자료의 수집정책과 이용방법은 이용자 만족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다른 자료와 공존하게 될 비디오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정책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비디오자료의 선정과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즉 교육부 산하 12개관, 행정자치부 산하 5개관 총 17개관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기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국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비디오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서와 활용에 관한 보다 일반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였다.

II. 선행연구 개관

비디오자료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미국 공공도서관협회(The 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의 시청각위원회가 공공도서관 매체서비스에 필요한 최초의 표준안내서인 Guidelines for Audiovisual Materials an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를 간행한 이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연구를 보면 강미혜¹⁾는 비디오시스템이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어떤 공헌을 하는가를 기존 문헌자료와 외국의 사례 및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접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된 도서관의 비디오시스템의 보유현황과 활용실태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윤숙²⁾은 슬라이드, Transparency, 교육방송(텔레비전, VTR), 그리고 교육영화 등 영상매체를 교육매체로 사용하여 학습능률 향상을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과 학습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오세철³⁾은 VTR의 유용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세 연구 모두 비디

1) 강미혜, "비디오시스템의 교육적활동." 도서관, 40권, 6호(1985), pp. 14-32.

2) 구윤숙, "영상매체를 통한 학습의 효과적인 방안" 학교도서관논집 (공주사대) 1집 (1986. 12), pp. 40-52.

3) 오세철, "V.T.R의 유용성과 교육적 효과." 도협 12(1988), pp. 112-12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2호)

오자료의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비디오자료의 목록규칙 및 목록전산화에 대해서, 이창수⁴⁾는 비디오테이프와 비디오스크의 목록규칙을 비교 연구하였다. 임동혁⁵⁾은 영화 및 비디오자료의 목록을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설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노영희⁶⁾는 비디오/오디오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웹 상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VOD(Video on Demand)/AOD(Audio on Demand)시스템 구축기술, 국내외 방송국 및 정보자료실들의 비디오, 오디오 자료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비디오자료의 모체가 되는 영화에 관한 연구에서 이창수⁷⁾는 영화 종류를 음의 유무, 색채의 유무, 필름의 폭과 용기로 구분하여 목록규칙을 비교하였고, 정옥경⁸⁾은 필름 자료의 분류와 목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국외연구로서 Micky Doran⁹⁾은 비디오자료의 수서 및 장서개발을 연구했다. 도서관이 비디오자료의 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키고 오직 자료의 자금확보를 위해 양적인 면과 비디오 대출 수수료에서 얻는 수입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비디오가게와 다를 바 없다고 기존 도서관의 수서정책을 비판했다.

James C. Scholtz¹⁰⁾는 비디오자료의 수서와 목록에 관한 저서에서 비디오산업의 역사와 발전, 도서관자료로서의 비디오, 비디오의 배포통로와 업자, 수서과정, 저작권문제, 비디오카세트 목록문제 등 수서와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Julia G. Mark, Seth Finn¹¹⁾는 미의회도서관의 필름과 비디오의 수서에 관해 고찰했으며, Merle Slyhoff¹²⁾는 비디오테이프와 장서개발에 관해 연구했다. 특히 많은 선정자원이 오히려 사서에게 부담을 주는 복합적인 문제로 보았다. Jens Thorhange¹³⁾는 덴마크의 공공도서관에

4) 이창수, "비디오 資料에 관한 目錄規則의 比較研究." 청량 정필모 박사화갑기념논문집(1990. 4), pp. 163-188.

5) 임동혁, "영화 및 비디오자료의 목록전산화 시스템설계," 중앙대(미간행석사학위논문), 1992.

6) 노영희, "디지털 도서관의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1998. 6), pp. 149-164.

7) 이창수, "映畵 필름에 관한 目錄規則의 比較研究," 고성수선생정년퇴임기념논문집(경북대 도서관), (1990. 10), pp. 103-120.

8) 정옥경, "Film 資料의 分類와 目錄에 관한 考察," 논문집 제4집(인천전문대학)(1983. 12), pp. 285-298.

9) Micky Doran, "Libraries or video shop? the need for an acquisition policy," *Audiovisual Librarian*, Vol. 17, no.3(Aug. 1991), pp. 158-161.

10) James C. Scholtz, *Video acquisition and cataloging*.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95. p. 164

11) Julia G. Mark and Seth Finn, "Film and Video acquisi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Management*, Vol. 14, no.1/2(1991), pp. 25-41.

12) Merle Slyhoff, "The video librarian's hide and seek: videotapes and col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Vol. 67, no.10(June 1993), pp. 36-38.

13) Jens Thorhange, "Videotaped programmes in Danish public libraries," *Scandinavian Public Library*

서 수서의 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Michael Hedges¹⁴⁾는 비디오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인식변화가 수집예산을 증가시켰는가를 다루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비디오를 선호하므로 그런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도서관을 외면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Deborah L. Vroman¹⁵⁾은 공공도서관에서의 비디오장서에 대한 검열문제를 다루었고, Catherine F. Pinion and Hanna de Vries¹⁶⁾는 시청각자료와 저작권문제를 연구했다. 그리고 S. S. Intner¹⁷⁾는 영화와 비디오의 주제접근을 다루었고, Michael J. Sadowski and Randy Meyer¹⁸⁾는 R등급 비디오에 대한 도서관의 연령제한이 법적인 소란을 야기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Eileen Wakiji Joy Thomas¹⁹⁾는 California주립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디오를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James Sheldlock²⁰⁾는 도서관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을 다루었고, Marian Dupper²¹⁾는 이용자 교육을 위해 도서관에서 직접 비디오를 제작하는 문제를 고찰했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비디오자료의 교육적 효과와 그를 통한 효과적인 학습방안 연구, 비디오자료의 정리와 목록전산화 연구에 집중되고 있었다. 국외연구는 수서 및 장서개발, 검색, 비디오를 통한 이용자 교육과 비디오 제작, 녹화, 저작권, 사서의 비디오자료에 대한 인식문제 등 다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서정책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비디오자료 뿐 아니라 비디오의 모체가 되는 영화 관한 연구도 활발했다.

그러나 비디오자료의 실제 수집방법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Quarterly, Vol. 22, no.3(1989), pp. 12-17.

- 14) Michael Hedges, "Managing an integrated video col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Vol. 67, no. 10(June 1993), pp. 32-35.
- 15) Deborah L. Vroman, "To see or not to see: a study of video collection censorship in American public libraries," *RQ*, Vol. 35, no.1(Fall 1995), pp. 37-42.
- 16) Catherine F. Pinion and Hanna de Vries, "Copyright and AV materials: an introduction," *IFLA Journal*, Vol. 19, no.4(1993), pp. 417-420.
- 17) S. S. Intner, "Subject access to films and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30, no.3(May-Jun 1994), pp. 449-50.
- 18) Michael J. Sadowski and Randy Meyer(eds.), "Library's age limit on R-rated videos causes legal uproar," *School Library Journal*, Vol. 40, no.2(Feb. 1994), pp. 10-11.
- 19) Eileen Wakiji and Joy Thomas, "MTV to the rescue: changing library attitudes through video,"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58, no.3(May 1997), pp. 211-216.
- 20) James Sheldlock, "Library orientation on videotape,"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Vol. 8, no.2(Summer, 1989), pp. 15-24.
- 21) Marian Dupper, "Making a video for library instruction," *Jagger Journal*, Vol. 9(1988/89), pp. 1-5.

Ⅲ. 공공도서관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

1. 비디오자료의 역사

비디오자료는 어떤 매체이며, 어떤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왔으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함으로써 도서관자료로서 자리잡게 되었는가?

인류는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동원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다. 처음엔 언어라는 음성매체를 통하여, 다음에는 문자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기존의 음성과 문자매체를 아우르는 전파매체를 만들어 내어 영화, 라디오, TV, 비디오,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끊임없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어 왔다. 마셜 맥루한이 말했듯이 “매체는 곧 메시지”가 된 것이다. 즉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뛰어넘어 어떤 매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발전양상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비디오(video)는 라틴어 *videre*(to see) + 영어 *-o* (as in audio)의 결합²²⁾으로 어원상으로 보면 비디오는 보고 듣는 시청각 기능을 말한다. 비디오자료의 정의를 보면,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화상과 음성 양쪽을 기록하여 TV 수상기나 모니터에 전자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자료의 총칭. 비디오테이프와 비디오디스크 양쪽을 포함”²³⁾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ALA 용어집의 정의 “영상과 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TV 수상기를 사용하여 영상과 음이 동시에 재생되도록 전자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비디오테이프와 비디오디스크를 포함한다.”²⁴⁾와 대동소이하다. AACR2 에서는 “보통 음이 담긴 동작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고 TV 수상기로 재생되도록 고안된 것”²⁵⁾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자료는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기록하여 TV 수상기를 통해 재생되도록 고안된 것이며, 비디오테이프와 비디오디스크를 포함하는 정보기록 매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자료 중에서 비디오테이프만을 다루고자 한다. 앞으로 표기하게 될 용어 “비디오자료”는 비디오테이프를 의미하게 된다.

전자공학의 발달과 TV의 보급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된 비디오테이프는 각국의 방송업체가

2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Merriam, 1985, p. 1304.

23)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177.

24)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p. 239.

25)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8. p. 572.

이를 도입함으로써 VTR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가 종합예술이라 부르는 영화는 영상자료의 대표격이다. 그러나 영화필름은 사진필름을 이용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비디오테이프는 녹화와 재생의 반복이 가능하며, 영화필름이 사물을 그대로 촬영, 현상하는 것에 대해 비디오테이프는 화면을 영상신호로 바꾸어 녹화하고, 다시 그 신호를 수상기를 통해 영상으로 재생시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영상매체의 교육적 가치와 그 유용성에 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비디오는 녹화와 재생의 반복기능으로 인하여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교육매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매체에 수록하여 반복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료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비디오테이프는 원래 상업방송 프로그램을 보관, 재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 처음엔 비싼 TV 기재에만 사용하였으므로 도서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저렴한 가격의 VTR의 생산과 보급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home video)가 되었다고 하고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디오는 맨처음 병원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신병환자가 비디오 화면에 비친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치유해 가는 방법으로서 사용되었던 것인데²⁶⁾ 지금은 각 분야의 학문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구미 도서관에서는 이미 도서관자료로서 구입 또는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연대별로 본 도서관자료로서의 비디오자료의 발달사는 다음과 같다.²⁷⁾

연 도	발 달 내 용
1980년:	Disney사는 "가정용"타이틀을 2가지 출시방식-푸른 포장(대여용);흰 포장(판매용)-을 시도. The Public Broadcating Service(PBS)는 TV 방송국과 독립제작자들이 제작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교실과 도서관에 배급하기 위해 PBS Video라는 자회사를 만들. Billboard는 "비디오 대여순위(Top Videocassette Rental)"와 "판매순위(Sales Hit Charts)"를 실기 시작.
1981년:	Pat Machy는 <i>Sightline</i> (summer 1981)에 "Developing video collection,"를 기고. 이는 도서관에서 비디오를 인정하는 첫 논문.
1984년:	美 대법원은 <i>Columbia Pictures</i> 對 <i>Redd Home</i> 이 관련된 결정을 발표. "가정용 비디오"의 내부 시청의 허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비디오가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裁定은 비디오를 이용하는 도서관과 학교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26) 강미혜, "비디오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Vol. 40, no. 6(1985. 11), p. 25.

27) James C. Sholtz, *Video acquisitions and cataloging : a handbook*.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95. pp. 3-15.

연 도	발 달 내 용
1985년:	John W. Ellison은 매체사서를 위한 표준교재인 Media Librarianship을 편집.
1986년:	ALA는 <i>American Libraries</i> 에 "Library use of copyrighted videotapes and computer software,"를 발표. 이는 ALA가 전자매체와 비디오매체의 불안정한 저작권법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 Randy Pitman이 <i>The Video Librarian</i> 를 간행. 이 이정표적인 연속간행물은 비디오산업, 도서관뉴스 그리고 비디오비평을 겸한다.
1987년:	사서가 어떻게 새로운 비디오매체를 이용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the Library Video Network는 2개의 훈련비디오를 제작.
1988년:	Clearview Media사가 "가정용" 비디오의 종합비평서인 <i>Librarian's Video Review</i> (James Scholtz, ed.)를 간행함.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Media and Equipment(AIME)가 저작권법에 관한 사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비디오 <i>Copyright: What Every School, College and Public Library Should Know</i> 를 제작. <i>The ALA Yearbook</i> 이 1988년을 비디오의 "분수령의 해"로 기술할만큼 공공도서관의 80%가 비디오장서를 대출. <i>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1988 rev. ed.</i> 이 간행, 시청각포맷, 특히 비디오에 관한 章을 확장했다.
1989년:	ALA와 카네기재단이 다시 연합하여 Quality Video for Youth Project를 <i>Children's Video in Libraries</i> 라는 회보를 발행.
1991년:	1990년 만들어진 The Video Interest Group이 공식토론회(ALA Round Table)로 됨.
1992년:	의회는 1978년 以前 필름의 저작권을 "자동" 갱신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
1994년:	PBS Video는 소비자 시장에 그들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Turner Home Entertainment를 선택.

위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 이후 가정용비디오(home-use only video)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도 비디오장서 대출계획을 세우는 등 변화가 오게 되었다. 그리고 ALA가 "비디오의 분수령(watershed year)"의 해로 기술한 1988년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비디오가 도서관자료로서 급속하게 발전하여 그 꽃을 피운 시기는 10년 정도라 하겠다.

이처럼 우리가 홈비디오라 부르는 가정용비디오가 개발됨에 따라, 비디오시장은 교육용 비디오와 독립 비디오 양쪽에 가격을 낮추게 만들었다. 이런 계기는 실제로 모든 도서관에 비디오를 매력적이고 입수가능한 자료로 만들었다. 이처럼 비디오산업의 발달은 비디오가 도서관의 주요 자료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주었다.

특히 비디오가 도서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비디오상영을 통한 이용자 봉사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정보를 비디오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타인이 생산한 정보자료(출판물, 상업용 비디오)만을 수집하여 이용시킨 정보소비자에서 비디오 시설의 도입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생산자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서비스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상업적 비디오는 대개 2가지 방식으로 생산된다. 즉, 영화를 비디오로 제작(video copies of motion pictures)하는 것과 TV 방송물을 비디오로 제작(video copies of TV broadcasts)하여 출시하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상업용 비디오의 구입 외에 도서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정보내용에는 비디오로서만이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비디오의 제작은 그 의의가 더욱 크며 또한 도서관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하겠다.

2. 비디오자료의 특성

이제 비디오자료는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 자료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매체로서, 그리고 안방의 오락과 교양매체로서 자리잡았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디오자료의 특성과 장점은 무엇인가.

먼저 비디오 시설의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기능은 자료를 녹화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원하는 시간에 재생시킬 수 있고,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면을 정지하여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녹화하거나 각종 행사나 강의 또는 현장실습 등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디오 시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²⁹⁾

- 1) 비디오는 녹화 후 필름이나 슬라이드처럼 화학적 처리없이 바로 화면과 음성을 재생시킬 수 있다.
- 2) 자료는 모니터를 이용하거나 비디오 대형스크린을 사용하여 몇 번이라도 개별학습 또는 대단위 학습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강의실에 CCTV를 활용하여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 3) 영화필름에서 비디오테이프, 또는 TV 프로그램에서 테이프에 전환 복사할 수 있는 교환성을 가지고 있다.
- 4) 한 번 녹화된 내용은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방영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 5) 제작, 편집, 시청 등 원하는 화면을 쉽게 찾는 기능이 있으며, 빠른 동작, 느린 동작, 정지 등과 같은 속도에 대한 재생성을 발휘할 수 있다.

28) Carolyn O. Frost, *Media access and organization : a cataloging and reference sources guide for nonbook materials*.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89. p. 114.

29) 강미혜, "비디오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p. 24.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2호)

- 6) 녹화테이프는 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녹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
- 7)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촬영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
- 8) 비디오 시설은 조작이 간단하여 쉽게 제작할 수 있다.
- 9) 비디오 시설은 보통 밝기의 실내 어디에서나 화면을 볼 수 있어 강의나 수업의 중단없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10) 테이프에는 영상만을 기록하는 영상트랙 외에 음향만을 담는 음향트랙, 콘트롤트랙 등이 있는데 필요시 언제든지 음성만 바꾸어 넣을 수 있다.
- 11) 화면에는 영상 기록뿐 아니라 자막을 그대로 담을 수 있으므로(captioned film) 농아용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 12) TV 프로그램을 항시 예약, 녹화할 수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다른 기능은 비디오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을 위한 홍보용으로 제작하거나, 사서의 봉사업무를 녹화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자신의 강의나 수업, 실기 등을 녹화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작하거나 녹화한 비디오를 통해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고, 도서관은 자체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교수나 학생들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즉, 자기평가(self-evaluation) 기능이라 할 수 있다.

California Satate University, Long Beach(CSULB)도서관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제작했다.³⁰⁾ 1981년에 28분짜리로 제작된 비디오는 New York Film Institute에서 상을 받았으나, MTV³¹⁾를 보고 자란 X세대를 사로잡을 새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 목적은 도서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디오는 도서관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1994년 8분짜리 비디오 "Liberspace"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완성했다. Liberspace는 도서관 정보광고 또는 MTV 비디오로 기술될 수 있는데 내용은 간결하고 빠른 영상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빠른 템포의 음악을 강조했다. Liberspace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하고, 이용가능한 자료의 배치를 알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다. 아울러 사서가 안내하는 정보탐색을 강조했다.

日本圖書館協會의 이용자교육임시위원회는 도서관비디오 시리즈 "도서관의 친구(圖書館の

30) Eileen Wakiji and Joy Thomas, "MTV to the rescue: changing library attitudes through video,"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 58, no.3(May 1997), pp. 211-216.

31) MTV(Music Television): 24시간 인기가수, 그룹의 비디오를 방영하는 미국의 사설방송.

達人)”를 제작완성하여 보고하였다.³²⁾ 이는 “사람. 시간. 예산이 없어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공통 tool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다.

Orlando Public Library의 참고사서들은 (1) 비디오를 통한 서비스를 방해하지 않고, 직원과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2) 이런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실험에 자원하여 개별적인 비디오 녹화작업에 참여했다.³³⁾

실제 공공서비스 업무의 비디오 자기평가는 주관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으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비디오 자기평가의 유용성은 한 번 참여한 자원자들이 더 많은 참여기회를 가지려는 의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3. 공공도서관과 비디오자료

公共圖書館協議會가 간행한 1998년도 <公共圖書館要覽>³⁴⁾에 의하면, 1997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수는 370관이다. 그리고 다른 주요 국가별 공공도서관수(한국: 370, 미국: 15,346, 영국: 5,185, 프랑스: 2,740, 일본: 2,172개관), 총장서수, 관당평균 장서수, 관당 평균 인구수, 그리고 인구 1인당 책수를 비교해 볼 때, 한국도서관수가 가장 빈약했다. 물론 각 나라의 도서관 발달사를 무시한 단순 비교가 무리이나 도서관수가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공공도서관수가 부족한 것은 결국 기존 도서관의 업무량에 부담을 주고 사서는 많은 이용자에게 봉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만큼 도서관의 어깨가 무겁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할 수 없는 점 또한 현실이다.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1994. 3.24. 법률 제4746호) 제 3장 公共圖書館, 第20條(業務)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³⁵⁾고 되어 있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公衆에의 이용 2) 公衆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2) JLA利用者教育臨時委員會, “[人.時間.豫算]의壁を 破る利用者教育の 強力ツール新登場:ライブラリ-ビデオ シリ-ズ [圖書館の 達人],” 圖書館雜誌, Vol. 86, no. 11(1992. 11), pp. 798-799.

33) Judith Mucci, "Videotape self-evaluation in public libraries: experiments in evaluating public service," RQ Vol. 16, no.1(Fall 1970), pp. 33-37.

34) 공공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요람 1998』, 서울. 동협의회, 1998. p. 2.

35) 공공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요람』, 1998. p. 98.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2호)

위의 업무수행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은 시설중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시설 그 자체가 교육적 문화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성인들이 시설을 통하여 자기의 식견과 감상력을 넓히게 하는³⁶⁾기관이다. 그러나 시설중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이 갖는 기능 중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지역주민의 자기교육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서의 기능³⁷⁾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런 교육적 기능을 원활히 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인쇄매체뿐 아니라 시청각매체(영상매체) 그 가운데 비디오자료는 빼놓을 수 없는 교육매체이다. 공공도서관과 비디오자료의 교육적 기능은 공통의 목표에 부합되는 매체라 하겠다.

공공도서관에서 비디오소장의 역사는 2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1980년 이전과 1980년 이후³⁸⁾이다. 1980년 이전에는 이용자들이 VCR 장치가 없거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를 대출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었다. 1980년 후, 가정용비디오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고 도서관들도 그에 대응하여 비디오장서를 대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1980년 이전 대부분의 비디오타이틀은 교육용으로 가정용 비디오 보다 훨씬 비쌌다. 그 당시에는 집단이용에 도움이 되는 재생시스템을 갖춘 비디오매체를 제공할 대형 스크린이나 프로젝션 TV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용 비디오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었고, 비디오의 이용을 교육용, 집단용에서 개인용으로 바꾸어 놓았다.

1985년 한 해만 볼 때,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가 1,197,000,000권이 대출된 것과 비교하면 비디오는 1,200,000,000title이 대출되었다.³⁹⁾ 많은 사서들은 비디오 대출이 매년 15-43%로 집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비디오는 이미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에서 기정사실로 정착되었고, 그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Library Journal*이 전국의 대학과 공공도서관에 실시한 간략조사⁴⁰⁾에서도 소수 표본인 70개의 도서관 중 87%가 신규로 또는 계속 소장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 공공도서관 중 동남지역의 어떤 도서관은 12title에서 5000title까지 소장하기도 했다. 비디오를 소장하지 않은 도서관은 13%이고, 대부분 돈, 공간, 또는 그 매체를 다룰 직원의 부족을 들었다.

美의회도서관(LC)은 1946년 자관의 수서정책을 간행한 이래, 더 포괄적인 영화와 비디오작품 관련기록에 학문적 지원을 증가했다. LC의 영화와 비디오 수서정책은 매년 상업적 생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LC는 Society for Cinema

36) 황종건, 『한국의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78. pp. 27-28.

37)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 활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1990. pp. 35-39.

38) James C. Scholtz, *Video acquisitions and cataloging*, pp. 1-2.

39) James C. Scholtz, *op. cit.*, p. xvii.

40) Loretta C. Lettner, "Videocassettes in libraries," *Library Journal*, Vol. 110, no. 19(Nov. 15 1985), p. 35.

Studies(SCS)의 협력으로 Motion Picture, Broadcasting and Recorded Sound(MBRS)부의 1946년의 수서정책 수정안을 어느정도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적 조사를 했다.⁴¹⁾

그러나 미국의 공공유산을 보존하고 사학자와 학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책임을 지고 있는 LC는 새로운 계층의 학자들의 연구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상품을 보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체연구분야의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회원은 현대적인 개념의 대중문화에 우선한 고급문화의 보존을 거부했다. 이에 저자들은 영화와 비디오자료는 계속 노후화되고 새로 선택해야 할 자료들이 풍부하므로 LC는 매체학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공식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도서관의 수집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영국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비디오의 이용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그 주요 이유는 보통 9.99파운드로 비디오 가격이 낮아져 직판시장의 성장이 매우 빨랐다는 점이다.⁴²⁾ 비디오 대여산업은 쇠퇴하는 반면, 직판매는 고속성장을 하므로 도서관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게다가 가정의 VCR 보급률이 60%에 달한 점도 비디오 이용을 증대시킨 요인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비디오 대출이 서비스의 범위와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재정적인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들이 비디오 대출수수료 부과에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상업적인 비디오 가게를 하나의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비디오 가게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British Universities Film and Video Council(BUFVC)⁴³⁾는 비디오자료에 대한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 1987년 BBC와 BUFVC는 공동으로 The British Video History Trust를 설립했다.⁴⁴⁾ 그 목적은 영국 당대의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증거와 장면을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수집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즉, 역사보존의 매체로 비디오자료를 택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미래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존 비디오자료를 어떻게 목록, 색인하고 보존할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을 연구한다.

프랑스 도서관에서는 1978년에 처음 비디오자료가 등장했다.⁴⁵⁾ 그러나 도서관 장서로서 비

41) Julia G. Mack, Seth Finn, "Film and video acquisit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MBRS policies and academic values," *Collection Management*, Vol. 14, no. 1/2(1991), pp. 25-41.

42) Micky Doran, "Libraries or video shop?: the need for acquisition policy," *Audiovisual Librarian*, Vol. 17, no.3(Aug. 1991), p. 159.

43) Ann M. Aungle, "British Universities Film and Video Council-annual conference," *Audiovisual Librarian*, Vol. 17, no.3(1991), pp. 174-177.

44) Frances Thorpe, "The British video history trust-the first five years," *Audiovisual Librarian*, Vol. 19, no.1(1992), pp. 57-59.

45) Jean-Claude Crotet, Varda Lerin, Françoise Moreau, "Video service and the public library," *Audiovisual Librarian*, Vol. 19, no.1(Feb. 1993), pp. 34-41.

디오의 이용가능성은 많은 법적인 문제로 제한적이었으며, 시장은 불안정하였다.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 이용가능한 정보는 개략적이고 본질상 광고자료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의 비디오서비스는 독자성을 갖추고 선정정책의 기반 위에서 상업적인 단순한 비디오가계와 차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1985년에 약 100개의 도서관이 거의 700 title을 선정하여 참고서비스를 시작했다. 1986년에는 Clermont-Ferrand과 Grenoble지역에 처음으로 비디오 대출부서가 문을 열었다. 1989년 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DLL)이 간행한 圖解는 대출활동이 성장했음을 보여준다.(1988년에 60,727 title, 1989년에 200,027 title)

최근 네델란드에서도 비디오는 매우 인기있는 매체가 되었다. 거의 50%의 가정이 VCR를 소유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에서 비디오를 빌리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⁴⁶⁾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비디오자료의 선정도구인 *Audiovizier*는 상업시장에서 만들었으나 모든 비상업적 비디오도 포함되었다. 각 title에는 간단한 설명서가 딸리며, 매년 거의 1,200title을 해설한다.

Dutch Centr for Public Libraries and Literature(NBLC)도 비디오로 된 TV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애쓴다. 도서관은 비디오를 가정에서 가족끼리 볼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권리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 배급자는 그 권리를 가져서 도서관이 클레임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서관은 일반국민에게(또는 관내에서) 비디오를 상영하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NBLC는 교육프로그램에 한해서 소규모 집단에 상영할 수 있는 권리보중에 애쓰고 있다.

가까운 日本은 비디오의 개인대출이나 상영을 통해서 도서관의 자료제공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알 자유의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⁴⁷⁾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영화상영은 도서관자료의 활용이고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본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비디오대여점에서 할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자료제공의 사명과 의무가 그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46) Hanna de Vries, "Media and manager-an audiovisual relationship?," *IFLA Journal*, Vol. 18, no.3(1992), pp. 232-237.

47) 日本圖書館協會著作権問題委員會ビデオ專門委員會, “圖書館における映畫上映の 基本的 方針と上映作品 選定の 基準について(案),” *圖書館雜誌*, Vol. 90, no. 12(1996 12), p. 1009.

IV.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조사결과 및 분석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관수는 공공도서관협의회에서 간행한 공공도서관요람(1998)에 의하면 총 19개관(교육부, 내무부 17개관, 사립 2개관)이나 사립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우편을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교육부 산하 도서관 12개관과 행정자치부 산하 도서관 5개관, 총 17개관에 배부하여 회수된 15개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전체 17개관 중 15개관을 회수하여 88 %의 회수율을 보였다.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배부설문지수	17	100
회수설문지수	15	88

2. 설문지 구성

설문지 구성은 두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부분은 응답자의 배경을, 두 번째 부분은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39개 문항과 자유의사 개진 1문항으로 하여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배경에서, “현재의 직위”는 사서직이 66.7%, 기능직이 6.7%, 그리고 무응답이 26.6%였다. “비디오자료 담당기간”에서 1-6개월이 60%, 2년 이상이 20%, 무응답이 20%로 나타났다. 66.7%가 사서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연한은 60%가 6개월 미만으로 업무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구성의 두 번째 부분인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설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설문내용 구성

설 문 내 용	설 문 번 호
비디오자료의 소장현황 및 시설	1-4(4문항)
비디오자료의 수집	5-19(15문항)
비디오자료의 정리	20-23(4문항)
비디오자료의 이용	24-39(16문항)
자유의사 개진	40(1문항)

14번 문항의 비디오자료의 소장현황 및 시설은 자료의 수집과 관련있는 예비조사이고, 자료의 정리에 관한 20-23번의 4문항 역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포함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응답 도서관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자료의 수는 <표 3>과 같다.

1) 소장 Title 數

<표 3> 소장 Title 數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1-49	2	13.3
50-99	1	0.7
100-199	4	26.7
200-499	3	20
500-1000	2	13.3
	3(무응답)	20
계	15	100

46.7%가 100-500Title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개관이 215Title을 소장하고 있으며, 최고는 738 Title이고, 최저는 20 Title이다. 이는 도서관간의 소장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주제별 Title 數

주제별 구분은 소장 도서관 중 8개관만이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 2개관은 KDC에 의해 분류하였고, 나머지 6개관은 독자적인 주제로 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주제별 title 數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관광(여행)	459	34
교육	262	19
영화(음악, 오락)	249	18
역사	131	9
응용과학	105	7
교양	86	6
순수과학	63	4
사회과학	49	3
계	1404	100

34%가 관광(여행)분야가 차지했는데 이는 관광지에 소재한 도서관이 집중적으로 소장(400 Title)하고 있음에 기인하였다. 그 다음 교육과 영화분야도 37%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학생을 주 이용대상으로 수집한 결과이고, 영화는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결과로 본다.

3) VTR 보유 대수

VTR 보유 대수 현황을 보면 전체 33대였다. 도서관마다 최저 1대씩은 보유하고 있었고, 평균 2.5대이며, 최다 보유 도서관은 15대였다. 이 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할 때 신청하여 개별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직은 집단상영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4) 비디오자료의 보관방법

비디오장 및 서가에 33%, 일반 사무실 13%, 별도 보관함 13%, 캐비닛 7%, 빈 공간에 7%, 그리고 무응답이 27%이었다. 33%가 비디오장이나 서가에 보존하였으며, 이는 온도, 습도, 채광 등 전체적으로 비디오자료의 보존이나 보관방법에 관심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5) 비디오자료 입수방법(해당 항목 모두 체크)

비디오자료의 입수방법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비디오자료 입수방법

구 분	응 답 수(중복 체크)	백 분 율(%)
구입	10	67
대여	6	40
기증	9	60
기타	2	13
계	15	100

15개관 중 67%가 구입한다고 답했다. 기증도 60%가 되며, 대여는 40%였다. 기타는 교환이나 직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한 경우였다. 중복 체크를 한 결과 60%가 구입과 대여, 구입과 기증 또는 대여와 기증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이는 수서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6) 구입의 경우, 비디오자료의 수집예산은

구입을 할 경우, 수집하는 예산의 형태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수집 예산의 형태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도서관예산에 고정 책정		
전체 시청각자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	1	7
그때 그때 적합한 자료있을 때 구입결정	12	80
일반도서와 같이 취급		
기타	2	13
계	15	100

고정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적합한 자료가 있을 때 구입하는 도서관이 80%나 되었다. 예산은 도서관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그것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것은 비디오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봉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7) 만약 기증을 받는다면 누구(개인, 단체)로부터, 그리고 보상을 하는지

기증의 경우는 중복 체크되어 60%였다. 기증받는 대상은 공공기관(교육청, 시청), 학술단체, 그리고 서점 등이었고, 그 내용은 대개 교육, 홍보용, 교양물이었다. 따로 보상은 하지 않고 인수증과 감사장을 발송하는 정도였다. 그나마 자진해서 기증하면 감사장 발송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만약 대여한다면 대여방법과 비용 지불방법은

대여를 하는 40% 모두 비디오점에서 대여하였다. 선정방법은 선정목록을 정한 후 선정하는 경우와 바로 비디오점에 가서 하기도 하였다. 지불방법은 교육행정비, 관서운영비, 본 예산, 서무계 등에서 지불하였다. 앞서 수집예산과 관련있는 문항으로 고정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9) 수집대상은(연령별)(해당 항목 모두 체크)〈표7〉과 같다.

〈표 7〉 수집대상(연령별)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성인용	7	19
어린이용	11	30
청소년용	12	32
중년용	7	19
계	37	100

62%가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앞으로 학생뿐 아니라 성인용 등 이용자 대상층

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수집대상은(목적별)(해당사항 모두 체크) <표8>과 같다.

<표 8> 수집대상(목적별)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가족용	7	33
학생용	10	48
교사용	1	5
사서용	3	14
농아용		
건강중사자용		
계	21	100

연령별 수집과 관련있는 결과이다. 학생용과 교사용이 전체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용이 14% 있어 고무적이지만 장애자를 위한 배려가 전연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11) 비디오자료 선정방법은(해당 사항 모두 체크) <표9>와 같다.

<표 9> 비디오자료 선정방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선정위원회가 있다	10	59
사서의 재량에 맡긴다	5	29
이용자 희망비디오 우선	2	12
기타		
계	17	100

선정위원회가 하는 경우가 59%였다. 약 60%의 도서관이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 중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겸임하는 곳도 2개관 있었다. 사서가 선정해서 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도 1개관 있었고, 사서의 재량에 맡긴다는 29%였다.

12) 만약 선정위원회가 있다면 그 자격요건은

도서선정위원회(자격요건은 명시하지 않았음)가 참여한다가 20%, 사서자격증 소지자 외 회계지출 담당자, 서무과와 사서과 담당자, 사서직, 각 자료실 사서, 수서담당 사서 등 다양했으며, 30%는 무응답이었다.

선정위원회에는 사서직 외에 회계지출 담당자나 서무과에서 참여하였다. 이는 우수한 자료의 선정보다 예산 범위내에서 인위적으로 선정될 기회가 높다고 하겠다.

13) 만약 사서의 재량에 맡긴다면, 선정도구는

관련 정기간행물, 영화잡지, 비디오 가이드, 추천 비디오목록, 타 도서관 자료목록, 영상사업 단 홍보 팸플릿, 국제영화제 상영작이나 수상작품, 이용자 희망비디오 등 이었다. 전체적으로 정기간행물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비디오자료 수집내용도 도서관의 주제 특성화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주제를 특성화해서 수서하므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40%만이 고려한다고 답하였다. 아직 공동수서나 상호대차를 고려하기 어려운 비디오자료의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15) 필요에 따라 도서관에서 비디오를 제작하는지

100% 제작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개관은 2000년 위성방송 설치가 되면 제작할 계획이라 응답하였다. 아직까지 도서관이 정보나 자료의 생산기관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희박한 것을 알 수 있다.

16) 만약 제작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15번 문항과 연결되므로 응답 도서관은 없었다. 1개관이 만약 한다면, '도서관 홍보 및 이용법'에 관해 제작하겠다고 응답하였다.

17)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녹화하는지.

그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 10> 프로그램 녹화하는지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한다	2	13
안한다	6	40
안하지만 할 계획이다	7	47
계	15	100

40%는 녹화를 안했지만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인 도서관은 60%였다. 이는 비록 비디오 제작은 아니지만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자세라 하겠다.

18) 반복 사용으로 인한 사용 불가능(훼손) 비디오자료의 처리는

'아직 그런 경우 없다'가 93%를 차지하였고, '폐기'는 7%였다. 폐기처분이나 제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아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수명이 다 했지만 이용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는 자료의 입수방법은

'상호대차를 활용하겠다'가 13%, '대여점에서 대여하겠다'가 27%, '무응답'이 60%였다. 그러나 '재구입하겠다'는 응답은 없었다. 아직 자료의 훼손이나 폐기를 경험을 하지 못했고, 또 그에 따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 입수된 비디오자료의 분류는 <표11>과 같다.

<표 11> 분류방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수입순	4	27
가나다순(알파벳순)		
분류순	9	60
기타	2	13
계	15	100

60%가 분류순이며, 수입순은 27%이다. 87%가 예산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타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21) 만약 분류순으로 한다면 사용하는 분류법은 <표12>와 같다.

<표 12> 사용하는 분류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한국십진분류법(KDC)	9	100
듀이십진분류법(DDC)		
기타		
계	9	100

분류순으로 정리하는 도서관은 100% KDC를 사용했다. 아마 도서관자료와 동일한 분류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관리나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2) 비디오자료의 목록은 <표13>과 같다.

<표 13> 비디오자료의 목록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한다	11	74
안한다	2	13
기타	2	13
계	15	100

74%가 목록을 하였으며 분류를 하는 도서관은 동시에 목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만약 목록을 한다면 목록형식은 <표14>와 같다.

<표 14> 목록형식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기본 서지사항만 기록	10	91
기본 서지사항과 내용을요약해서 기록	1	9
기타	11	
계		100

91%가 기본적인 서지사항만을 기록한다고 응답했다. 간략목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24) 비디오자료 전용 상영실은 <표15>와 같다.

<표 15> 전용상영실 여부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있다	1	7
시청각실에서 한다(또는 시청각실의 한 방 마련)	5	33
기타	9	60
계	15	100

40(7+33)%만이 비디오자료 상영을 위한 공간이 있고, 기타는 60%로 관광여행정보실, 어린이 열람실을 이용하는 경우였다. 상영계획은 체계적이지만 상영공간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비디오자료 이용방법은 <표16>과 같다.

<표 16> 이용방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대출 가능하다	2	13
관내에서만 이용가능	11	74
무응답	2	13
계	15	100

74%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13%가 대출 가능했다. 아직까지 비디오자료의 관외대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료의 훼손이나 파손을 우려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26) 만약 비디오자료가 대출 가능하다면, 대출기간은

대출 가능한 도서관은 2개관이었다. 1개관은 7일이었고, 1개관은 꼭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명시없음)라고 인정될 때만 대출한다고 하였다.

27) 대출을 연체했을 때의 제재 규정은 <표17>과 같다.

<표 17>대출연체시 제재규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대출금지	1	50
1회에 한해 기회를 준다		
연체료 물린다		
기타	1	50
계	2	100

1개관은 바로 '대출금지' 시켰고 1개관은 무응답이었다. 앞으로 대출도서관이 증가하면 일반 도서관과 같이 그에 따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8) 대출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대출계획은 없는지는 <표18>과 같다.

<표 18> 앞으로의 대출계획

구분	응답수	백분율(%)
있다	1	9
없다	7	64
	3	27
계	11	100

64%가 앞으로도 대출계획이 없었으며, 27%는 무응답이었다. 무응답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91%가 대출계획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 비디오자료의 대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29)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구체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를 '관리상의 어려움'이 27%, '자료의 훼손과 파손 우려'가 27%, 46%는 '자료부족과 예산부족'을 꼽았다.

관리상의 어려움엔 테이프의 영킴, 지워짐 등을 들었고, 자료의 훼손과 파손 우려에 대한 것은 대개 비판매용이므로 재구입이 어렵고, 대부분 set로 되어 있어 분실했을 때 대체불가능한 자료가 많다는 점과 비디오대여점의 항의도 예를 들었다. 그리고 자료부족과 예산부족도 서로 맞물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

30) 관내 이용(상영)시 상영계획은 <표19>와 같다.

<표 19> 관내 상영계획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미리 계획을 세운다	10	77
이용자 시청희망 시	2	15
기타	1	8
계	13	100

77%가 사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상영하며, 15%는 이용자가 시청을 희망할 때 상영하였다. 그리고 계획상영과 희망 시 상영의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곳도 1개관 있었다. 기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31) 상영계획을 세운다면 그 일정은 <표20>과 같다.

<표 20> 상영 일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주간 단위로	2	15
한달 단위로	9	70
기타	2	15
계	13	100

70%가 한달 단위로 상영하고 있고, 15%는 주간 단위로 했다. 기타는 공간부족으로 단체 상영계획은 없고, 개인이 신청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행사기간에만 상영하는 경우였다.

32) 비디오자료 상영기준은 <표21>과 같다.

<표 21> 상영기준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총 시간으로 한다	1	7
총 횟수로 한다	11	73
총 일로 한다		
기타	3	20
계	15	100

73%가 총 횟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다.

33) 1회 상영시 관람자수는 <표22>와 같다.

<표 22> 1회 상영시 관람자수

구 분(명)	응 답 수	백 분 율(%)
20-49	9	60
50-79	5	33
80 이상		
무응답	1	7
계		100

60%가 1회 상영시 50명 내외이고 50명 이상 80명 이하도 33%나 되었다. 적어도 대학 강의실(40명 기준)의 2배 정도 또는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전용 상영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34) 비디오 상영 후 이용자 반응을 조사하는가는 <표23>과 같다.

<표 23> 이용자 반응조사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한다	5	33
안한다	8	54
무응답	2	13
계	15	100

33%의 도서관이 이용자 반응조사를 하고 54%는 하지 않았다. 이는 계획적인 상영과는 달리 상영후 이용자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만약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표24>와 같다.

<표 24> 이용자 반응조사 방식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설문지 방식으로	4	80
시청 소감을 써 낸다		
기타	1	20
계	5	100

80%가 설문지로 이용자 반응을 조사했다. 기타는 무응답이었다. 그리고 반응조사를 안하는 도서관이 측정하는 방법은, '이용자들이 하는 얘기나 모이는 인원수에 따라 추측한다', '직접 반응을 물어 본다', '토론이나 대화 등 구두로 한다' 등이었다.

나름대로 반응을 측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산발적이고 체계이지 못해 상영계획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36) 비디오자료의 이용방법은 <표25>와 같다.

<표 25> 비디오자료의 이용방법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원본 이용	10	67
원본 복제하여 이용		
	5	33
계	15	100

67%가 원본을 사용하였고, 33%는 무응답이었다. 많은 도서관이 원본을 사용하므로 당연히 자료의 훼손이나 파손을 우려하게 되며, 이는 대출 불가능이란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37) 自館을 소개하는 비디오자료 있는지는 <표26>과 같다.

<표 26> 自館소개 비디오자료 여부

구분	응답수	백분율(%)
있다		
없다	15	100
계	15	100

응답 도서관이 전부 自館을 소개하는 비디오자료가 없었다. 이는 도서관의 홍보기능과 이용자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8) 만약 없다면 앞으로 제작할 계획은 있는지는 <표27>과 같다.

<표 27> 自館소개 비디오 제작계획 여부

구 분	응 답 수	백 분 율(%)
있다	1	7
없다	14	93
계	15	100

97%가 현재도 없지만 앞으로도 제작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물론 예산도 있어야 하나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홍보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 같다. 아마 도서관이 경쟁상대가 없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점도 한 요인이 아닐까 한다.

39) 비디오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① 절대 복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자가 허용한다면 복사 가능
- ②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③ 저작권 때문에 대여점 이용을 망설였지만 대안이 없다.
- ④ 주변 비디오대여점 업자들과의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 ⑤ 올바른 정책이나 현 도서관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 ⑥ 영리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으로 이용시키는 공공기관에서는 복제 허용을 희망한다. 저작권법 제 28조 '보존의 이유'로 자체 복제를 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비디오대여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

40) 비디오자료에 관한 자유의견 개진

- ①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시청각실 마련이 필요하다.
- ②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 따라서 대여수준이 불가피하다.
- ③ 예산이 부족하여 자료 입수가 어렵다. 지역 도서관간의 자료교환 등이 필요하다.
- ④ 비디오 전문자료실이 필요하다.
- ⑤ 비디오자료 입수대상은 名畫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 ⑥ 예산이 있더라도 영화비디오 구하기 힘들다. '도서관소식' 등으로 알려 주는 공식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을 기술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사회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

이 전자도서관을 지향하면서 “전자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을 앞다투어 만들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청각 자료 중 교육적 효과가 높고 기본매체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자료의 소장현황, 수집정책과 이용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디오자료에 대한 예산, 인식, 노력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지역 17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비디오자료의 입수를 통한 선정정책과 실제적인 이용 실태와 방법을 통하여 앞으로 비디오자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예산의 절대부족이다. 이는 자료부족의 요인이 될 뿐더러 수준높은 비디오자료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자료구성을 위해서는 꼭 고정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비디오자료 수집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80%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입수하였다. 이는 예산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엄선된 수집도구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공식채널로 ‘圖書館文化’나 ‘도서관’ 또는 ‘도서관계’ 등에서 관종별 또는 주제별 추천 비디오목록을 정기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 3) 비디오자료가 부족한 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Home Page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도서관의 비치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교환을 하면 상호대차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다양하고 우수한 자료의 공유를 돕고 예산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4) 소장자료의 구성이 교육, 영화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균형잡힌 수집정책이 요망된다.
- 5)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와 관련한 수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비디오자료의 매체의 특성으로 독립된 수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6) 87%의 도서관이 대출은 안하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예산, 자료의 부족, 그리고 자료의 훼손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디오자료의 대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이용보다 보존위주의 사고가 강한테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출했을 때 비디오대여점과의 마찰이나 항의도 우려했지만 도서관은 그런 대여점에서 할 수 없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인 자료제공의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공공도서관이 대부분 비디오자료를 대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7) 도서관 내에서의 비디오자료 이용은 대개 한달 단위의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직까지 집단상영 위주이며 VTR 보유 대수의 부족으로 희망 이용자의 개별 상영은 극히 일부 도서관에서만 가능했다.
 - 8) 상영 후의 이용자 반응조사는 30% 정도였다. 상영자체가 체계적인데 비해 그 후속조치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반응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비디오자료를 활성화시키는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9)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도서관은 13%였으나 제작하는 곳은 없었다. 현실적으로 제작이 어렵다면 녹화를 통해서 부족한 자료를 확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10) 응답 도서관 전부가 자관을 소개하는 비디오자료가 없으며, 제작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특히 자관을 소개하는 비디오자료는 도서관의 홍보효과와 위상제고는 물론 이용자교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9)-10)을 보면 공공도서관들이 여전히 도서관을 소장자료를 제공해서 봉사하는 소비자관으로 보는 소극적인 봉사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도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생산기관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1) 저작권은 인정하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인 현 도서관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저자의 허용아래 복제를 바라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8조 '보존의 이유'로 자체 복제를 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제가 가능하면 복제본은 이용하고 원본은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자료의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부담이 줄고 나아가 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공공도서관 비디오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설문

I. 응답자의 배경(해당사항에 직접 기재 또는 √해 주십시오.)

1. 담당자님의 현재 직위는 ()

2. 담당자님이 비디오자료를 담당하신 기간은 (년 월)

II. 비디오자료(비디오테이프, 비디오카트리지, 비디오디스크 포함)에 관한 설문(어느 항목이든 지 적합하지 않으면 따로 기재해 주십시오.)

1. 소장 타이틀(Title)數 (set는 개별로 계산해 주십시오.)

비디오테이프	Title
비디오디스크	Title
비디오 카트리지	Title

2. 주제別數 (가능하면 상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예 : 주제(음악) 數 (20 title)

3. VTR 보유대수

대

4. 비디오자료의 물리적인 보관 방법은(온도, 습기, 직사광선 등)

5. 비디오자료 입수 방법은(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해 주십시오.)

- ① 구입 ()
- ② 대여 ()
- ③ 기증 ()
- ④ 기타 ()

6. 구입의 경우 비디오자료의 수집 예산은

① 도서관 예산에 고정채정(전체예산의 %)되어 있다. ()

- ② 전체 시청각자료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책정한다. ()
- ③ 그때그때 적합한 자료가 있을 때 구입 결정하므로 일정하지 않다. ()
- ④ 일반도서와 같이 취급한다. ()

7. 만약 기증 받는 경우가 있다면 누구(개인, 단체)로부터, 그리고 보상을 하는지

8. 만약 대여한다면 대여방법과 비용 지불방법은

9. 수집대상은(연령별)(해당 항목은 모두 √해주시시오.)

- ① 성인용 ()
- ② 어린이용 ()
- ③ 청소년용 ()
- ④ 중년용 ()

10. 수집대상은(목적별)

- ① 가족용 ()
- ② 학생용 ()
- ③ 교사용 ()
- ④ 사서용 ()
- ⑤ 농이용 ()
- ⑥ 건강중사자용 ()

11. 비디오자료의 선정 방법은

- ① 선정위원회가 있다. ()
- ② 사서의 재량에 맡긴다. ()
- ③ 이용자 희망 비디오를 우선한다. ()
- ④ 기타

12. 만약 선정위원회가 있다면 그 자격요건은

13. 만약 사서의 재량에 맡긴다면, 수집도구는
14. 비디오자료 수집내용도 도서관의 주제 특성화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지
15. 필요에 따라 도서관에서 비디오를 제작하는지
16. 만약 제작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17.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녹화하는지
- ① 한다. ()
- ② 안한다. ()
- ③ 지금은 안하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다. ()
18. 반복사용으로 인한 재사용 불가능(훼손)비디오자료의 처리는
19. 수명이 다 했지만 이용자의 계속적인 요청이 있는 자료의 입수 방법은
20. 입수된 비디오자료의 분류는
- ① 수입순 ()
- ② 가나다순(또는 알파벳순) ()
- ③ 분류순 ()
- ④ 기타
21. 만약 분류순으로 한다면 사용하는 분류법은
- ① KDC ()
- ② DDC ()
- ③ 기타

22. 비디오자료의 목록은

- ① 한다. ()
- ② 안 한다. ()
- ③ 기타

23. 만약 목록을 한다면

- ① 기본 서지사항만 기록 ()
- ② 기본 서지사항과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다. ()
- ③ 기타

24. 비디오자료 전용 상영실은

- ① 있다. ()
- ② 시청각실에서 한다.(또는 시청각실의 한 방을 마련) ()
- ③ 기타

25. 비디오자료 이용방법은

- ① 대출 가능하다. ()
- ②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26. 만약 비디오자료가 대출 가능하다면, 대출 기간은
일

27. 대출 연체했을 때의 방법은

- ① 대출금지 ()
- ② 1회에 한하여 기회를 준다. ()
- ③ 연체료를 물린다. ()
- ④ 기타

28.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대출할 계획은 있는지

- ① 있다. ()
- ② 없다. ()

3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2호)

29. 대출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구체적으로)

30. 만약 관내이용(상영)만 가능하다면 상영계획은

- ① 미리 계획을 세운다. ()
- ② 이용자의 시청희망이 있을 때 ()
- ③ 기타

31. 상영계획을 세운다면 일정은

- ① 주간 단위로 ()
- ② 한달 단위로 ()
- ③ 기타

32. 비디오자료 상영기준은

- ① 총시간으로 한다. ()
- ② 총횟수로 한다. ()
- ③ 총일로 한다. ()
- ④ 기타

33. 1회 상영시 관람이용자수는

명

34. 비디오 상영 후 이용자 반응을 조사하는지

- ① 한다. ()
- ② 안 한다. ()

35. 만약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 ① 설문지 방식으로 ()
- ② 반응내용을 써내게 한다. ()
- ③ 기타

36. 비디오자료의 이용방법

- ① 원본이용 ()
- ② 원본을 복사하여 이용한다. ()

37. 自館을 소개하는 비디오 자료는 있는지

- ① 있다. ()
- ② 없다. ()

38. 만약 없다면 앞으로 제작할 계획은 있는지

- ① 있다. ()
- ② 없다. ()

39. 비디오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0. 항목에는 없지만 비디오자료에 관한 의견이 계시면 자유롭게 전개해주시시오.
(아울러 비디오상영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으면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